

文集과 樓亭을 중심으로 고찰한 潭陽 詩壇과 宋純의 역할

장선희*

<차 례>

1. 서 언
2. 國文學에 나타난 潭陽 詩壇의 位相
3. 文集을 중심으로 고찰한 潭陽 詩壇
4. 樓亭을 중심으로 고찰한 潭陽 詩壇
5. 潭陽 詩壇의 형성과 宋純의 役割
6. 결 어

<국문초록>

본 논문은 국문학 연구를 보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의 분석과 통계에 의해 기존의 성과들을 입증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국문학에 있어서 담양 지역과 송순의 위상을 문집과 누정의 조사와 분석이라는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시도한 문집과 누정의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얻어진 결론은 그동안 학자들이 주장하여 왔던 15-16세기의 국문학을 중심으로 한 광주문화권, 특히 담양을 중심으로 한 국문학 권역의 설정이 타당하였다는 것과 담양시단이라는 문학권을 형성하는 구심점이 되었던 인물이 송순이었다는 것을 실증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본 논문의 의의를 이미 조사 발표된 기존의 논지들을 자료의 분석과 통계라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을 통하여 입증하였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핵심어 : 담양 시대, 송순, 문집, 누정, 실증적 방법

* 광주보건대학교

1. 서 언

문학에 관한 연구는 자연 과학이나 사회 과학 연구처럼 실증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인간의 정서와 사상을 내용으로 하여 예술적 감각으로 표출된 문학의 특성상 이를 수치화하거나 계량화해서 결론을 이끌어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문학 연구는 일반적으로 문헌 연구나 형식 연구, 내용 연구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 특히, 문학의 내용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관점이나 판단이 연구의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중요한 관점이지만 지나치게 연구자의 주관성이 커지다 보면 객관성과 논리성을 확보하지 못한 공허한 주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 문학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연구의 논지가 연구자 고유의 시각과 주관성을 확보하면서도 학문이라는 객관적, 과학적, 논리적으로 뒷받침되는 실증성을 갖추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연구되고 주장되어졌던 潭陽과 宋純이 국문학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文集>과 <樓亭>의 조사와 분석이라는 객관적 자료의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로는 전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서 1992년에 발간한『光州圈文集解題』¹⁾와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에서 1985년에 발간한「全南地方 樓亭 調査報告(I) -光州·光山·潭陽·長城 地域-」²⁾을 활용하였다.『光州圈文集解題』는 1990년~1992년까지 3개년에 걸쳐 光州, 長城, 潭陽을 ‘光州圈’으로 설정하여 이들 지역에서 발간된 문집을 수집하고 해제하는 작업을 거쳐 발간한 보고서이다.「全南地方 樓亭 調査報告(I) -光州·光山·潭陽·長城

1) 全南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編, 『光州圈文集解題』, 『光州鄉土文化叢書』第11輯 光州直轄市, 1992.

2) 全南大學校 湖南文化研究所, 『全南地方 樓亭 調査報告(I)』, 『湖南文化研究』14집, 1985.

地域-」은 1984년~1990년까지 7개년에 걸쳐 전남 지역의 누정을 조사하여 작성한『전남지방 누정조사보고서 I~VII』³⁾중에서 1985년에 발표된 첫 번째 보고서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조사, 분석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았지만 선학들이 수집하고 정리한 자료와 연구결과물들을 재정리하고 재해석하는 방법을 통하여 지금까지 주장되어 왔던 논거들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2. 國文學에 나타난 潭陽 詩壇의 位相

담양을 중심으로 한 호남 지역의 문학에 대해서 논자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중기부터이다. 조선 중기의 비평가였던 蛟山 許筠(1569-1618)은 1611년에 정리한『惺所覆瓿藁』卷之二十三 「惺叟詩話」의 <湖南人才의 浮沈>⁴⁾이란 항목에서 “靖陵朝에 湖南人才들이 때에 나타난 자들이 심히 많았다”고 하면서 朴訥齋昆季, 崔舍人山斗, 眉菴昆季, 梁校理彭孫, 羅提學世纘, 林牧使亨秀, 金河西, 林石川, 宋三宰純, 吳贊成謙(謙)등과 같은 자가 가장 드러났으며, 그 후로 朴思菴, 李一齋, 梁松川, 奇高峯, 高霽峯 등이 혹은 學問으로 혹은 文章으로 세상에 나타났다고 언급하여 15, 16세기에 융성했던 호남의 학문과 문장을 소개하였다. 비슷한 시기인 1614년에『芝峯類說』을 집필한 芝峰 李晬光(1563 -1628)도 “근세의 시인들은 호남에서 많이 나왔다.”⁵⁾고 언급하고 朴訥齋祥, 林石川億齡, 林

3) 全南大學校 湖南文化研究所, 『全南地方 樓亭 調查報告 I~VII』, 『湖南文化研究』 14~20집, 1985~1991.

4) 許均.『惺所覆瓿藁』卷之二十三, <說部二 惺翁識小錄中> 「惺叟詩話」[湖南人才之浮沈] : 在靖陵朝. 湖南人才之顯于時者甚多. 如朴訥齋昆季. 崔舍人山斗. 眉菴昆季. 梁校理彭孫. 羅提學世纘. 林牧使亨秀. 金河西, 林石川, 宋三宰純, 吳贊成謙最著. 其後朴思菴, 李一齋, 梁松川, 奇高峯, 高霽峯. 或以學問. 或以文章顯於世. 及今無一人以才行聞於時者. 其占科第. 亦漸落落. 莫知其所由然也. 余出入湖南有年. 熟其風習. 蓋無大人先生教導開迪之者. 而人之稟性. 亦皆傑亢. 自是不肯屈己下於人. 衣食之源甚好. 故皆苟目前無遠圖. 此三者爲不學之崇. 可勝言哉.

錦湖亨秀, 金河西麟厚, 梁松川應弼(鼎), 朴思庵淳, 崔孤竹慶昌, 白玉峯光勳, 林白湖悌, 高苔軒敬命 같은 자들이 다 뛰어난 자들이라고 소개하였다. 호남 인재들에 대한 이들의 평가는 이후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재론되면서 호남의 문학을 논하는데 대표적으로 언급되어 왔다.

현대에 들어와 호남 문학이 다시 학문적으로 거론되고 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장덕순 교수와 임형택 교수의 발표에 의해서 촉발되었다. 제 11회 도남국문학상 시상 기념학술강연회에서 장덕순 교수는「광주문화권과 국문학」⁶⁾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광주시 일원과 나주와 담양 일대를 ‘광주문화권’으로 설정하고 그 개념을 국문학을 중심으로 한 문화권역으로 정의하였다. 또, 장덕순 교수는 이 발표에서 광주문화권은 한글문학과 한자문학이 가장 이상적으로 병존하였던 국문학적 특질 면에서 선각자적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송순의 <면양정가>와 정철의 <성산별곡>이 한시와 가사로 상호 교차 번역되었던 것을 거론하였다. 같은 강연회에서 임형택 교수는「16世紀 光羅 地域의 士林層과 宋純의 詩世界 - 溪山風流의 發展-」⁷⁾이라는 주제에서 옛 광주, 나주와 인근의 창평, 담양, 능주, 장성, 남평 등지를 포함하여 ‘光羅 지역권’으로 설정하고 그 근거를 허균이 언급한 16인의 호남 인재 중에서 崔山斗와 李恒을 제외한 14인이 모두 光羅 지역 출신이거나 여기에 와서 우거하면서 활동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임형택 교수⁸⁾는 光羅 지역은 대대로 호남지방의 문화적 중심의 위치를 지켰으므로 ‘光羅·長·昌’을 일컫게 되었으며 광주문화권이라는 용어를 역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바로 이 ‘光羅·長·昌’지역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광주문화권의

5) 李睟光, 『芝峯類說』卷十四, <文章部七 詩藝>: 頃世詩人多出於湖南。如朴訥齋祥, 林石川億齡, 林錦湖亨秀, 金河西麟厚, 梁松川應弼, 朴思庵淳, 崔孤竹慶昌, 白玉峯光勳, 林白湖悌, 高苔軒敬命。皆表表者也。

6) 張德順, 「光州文化圈과 國文學」, 『도남학보』10권, 도남학회, 1987. 101- 104쪽. 제 11회 도남국문학상 시상기념 학술강연회 발표논문.

7) 林煥澤, 「16世紀 光羅 地域의 士林層과 宋純의 詩世界 - 溪山風流의 發展-」, 『古典詩歌의 理念과 表象』, 林下 崔珍源博士停年記念論叢, 1991, 408-430쪽.

8) 林煥澤, 위의 논문, 417쪽.

영역을 능주, 장성, 남평 등지까지 확장시켰다. 그 이후에도 ‘광주문화권’, 또는 ‘光羅 지역권’의 개념은 더욱 확장되어져서 무등산을 인접하고 있는 화순까지를 포괄하는 ‘무등산권 문화권’이라는 권역을 주장하는 논자⁹⁾들에 이르렀다.

위에서 주장된 국문학적 문화 권역에서 담양은 언제나 중심부의 역할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국문학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은 학자들에 의해서 입증되어 왔다. 아울러 담양이 국문학의 중심 산실이 되기까지는 俛仰亭을 중심으로 활동한 宋純의 역할이 지대하였다는 것도 학자들에 의해 계속 입증되어 왔다.

2.1. 湖南 20傑의 活動年代

국문학에 나타난 담양시단의 위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허균과 이수광이 언급한 湖南 20傑의 活動年代와 出生地域, 活動地域을 조사하여 언제 어느 지역에서 문학 활동이 활발하였는가를 알아 보았다.

<표 1> 湖南 20傑 일람표

	성명	호	생몰년대	출생지역 및 활동지역
1	朴 祥	訥齋	1474-1530	광주
2	朴 祐	六峯	1476-1547	광주
3	崔山斗	新齋	1483-1536	광양출생, 화순동북 유배
4	柳希春	眉巖	1513-1577	해남 출생, 담양 거주
5	柳成春	鷲巖	1495-1522	해남
6	梁彭孫	學圃	1488-1545	화순(능주)
7	羅世纘	松齋	1498-1551	나주
8	林亨秀	錦湖	1514-1547	나주
9	金麟厚	河西	1510-1560	장성

9) 金成基, 「無等山圈 詩歌文學의 形成에 대한 研究」, 『韓國의 傳統文化』, 月印, 2001, 161-163쪽.

鄭知溶, 『17世紀 前期 無等山圈의 漢詩研究 -潭陽地域 作家와 作品을 대상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9.

10	林億齡	石川	1496-1568	해남 출생, 담양 거주
11	宋純	企村	1493-1582	담양
12	吳謙	菊齋	1496-1582	한성 출생, 담양 거주
13	朴淳	思菴	1523-1589	광주
14	李恒	一齋	1499-1576	한양 출생, 태인 거주
15	梁應鼎	松川	1519-1581	화순
16	奇大升	高峯	1527-1572	광주
17	高敬命	霽峯	1533-1592	광주
18	崔慶昌	孤竹	1539-1583	서울출생, 영암 거주
19	白光勳	玉峯	1537-1582	장흥, 해남
20	林悌	白湖	1549-1587	나주

<표 1>에 의하면 허균과 이수광이 언급한 湖南 20傑은 모두 15-16세기에 활동한 인물들이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20傑 중 허균이 먼저 언급하였던 12명 (朴訥齋昆季。崔舍人山斗。眉菴昆季。梁校理彭孫。羅提學世纘。林牧使亨秀。金河西, 林石川, 宋三宰純, 吳贊成璫)은 林牧使亨秀(1514-1547)와 金河西(1510-1560)를 제외하고는 모두 15세기 말에 출생하여 16세기 전반기에 주로 활동한 호남문학 1세대라고 볼 수 있다. 그 후로 언급한 5명(朴思菴, 李一齋, 梁松川, 奇高峯, 高霽峯)은 李一齋(1499-1576)를 제외하고는 모두 16세기 초에 출생하여 16세기 후반기에 활동한 호남문학 2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수광이 거론한 湖南 10傑도 崔慶昌, 白光勳, 林悌를 제외하고는 허균이 언급하였던 사람들과 동일 인물들이었으며, 崔慶昌, 白光勳, 林悌 역시 16세기 초에 출생하여 16세기 후반에 활동하였으므로 허균이 언급하였던 호남문학의 2세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에 의하여 조선조 호남문학은 이들 湖南 20傑에 의해 15-16세기에 개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 湖南 20傑의 出生地域과 活動地域

湖南 20傑의 활동지역을 알아보기 위해 <표 2>를 작성하였다.

<표 2> 湖南 20傑의 출생지역 및 활동지역 일람표

출생 및 활동지역	광주	담양	나주	화순	기타지역	합계
인물수 (명)	6명	4명	3명	2명	장성1, 장흥1, 해남1, 영암1, 태인1 (5명)	20명

<표 2>에 의하면 湖南 20傑이 주로 활동하였던 지역은 광주, 담양, 나주, 화순 등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학자들이 지금까지 주장하여 왔던 ‘광주문학권’, ‘光羅 지역권’, ‘무등산 문화권’ 등의 주장이 충분한 타당성을 가진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표 1>과 <표 2>에 의하여서도 호남문학은 15-16세기에 광주, 나주, 담양, 장성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호남문학 1,2세대 문인들에 의해 개화되었음이 입증되었다고 하겠다.

3. 文集을 중심으로 고찰한 潭陽 詩壇

본 발표에서 자료로 사용한『光州圈文集解題』¹⁰⁾는 ‘光州圈’을 光州, 長城, 潭陽으로 설정하고 1990년부터 1992년까지 3년 간에 걸쳐 발간, 미발간된 문집들을 발굴하여 그 중 310편을 정리, 해제하는 작업을 거쳐 출간되었다.

본 장에서는『光州圈文集解題』에 수록된 310편을 대상으로 수록 문인들의 出生年度, 出生地를 먼저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그 중에서 또 담양권 문인들의 出生年度를 조사하였다. 이들 조사는 광주권에서 담양지역 문인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활동 시기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10) 全南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編, 『光州圈文集解題』, 『光州郷土文化叢書』第11輯 光州直轄市, 1992.

3.1. 『光州圈文集解題』수록 文人들의 出生年度

<표 3>은 『光州圈文集解題』수록 문인들의 출생년도를 조사하여 문인들의 활동이 어느 시기에 가장 활발하였는지를 파악해 보았다.

<표 3> 『光州圈文集解題』수록 문인들의 출생년대별 분류 <총 310명>

년대별	15세기 이전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미상	합계
문인수	11명	19명	56명	41명	46명	118명	10명	9명	310명

<표 3>에 의하면 『光州圈文集解題』수록 문인들의 활동은 16세기부터 급격하게 활발해 졌음을 볼 수 있다. 또, 그러한 문학 활동은 17,18세기에 도 약간의 위축은 있으나 여전히 유지되었으며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더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16세기가 광주권 문학 활동의 개화기였음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16세기 못지않게 17세기 이후에도 문학 활동은 여전히 지속되거나 오히려 더 활발해졌음을 보여 주어 16세기에 개화된 호남 문학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겠다.

그리고 이 표에서 또 하나 주목하여야 할 점은 조선 후기이자 근대로 접어드는 19세기에 문인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19세기 문학 연구의 한 단서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3.2. 『光州圈文集解題』수록 文人들의 出生地

다음의 <표 4>는 『光州圈文集解題』수록 문인들을 출생지 별로 분류한 것이다.

<표 4> 『光州圈文集解題』수록 문인들의 출생지별 분류표<총 310명>

문인들 출생지	광주, 광산	장성	나주, 남평	담양, 창평	화순, 능주	서울	보성	영광	기타	미상	합계
인원수 (명)	82	59	45	39	17	8	2	2	16	40	310

<표 4>에서 보면 『光州圈文集解題』수록 문인들의 출생지가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시에는 문인들의 출생지와 활동지역이 대체로 일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표 4>에서 310명의 전체 문인 중 ‘光羅·長·昌’지역 -즉, ‘광주문화권’ 지역 문인들이 225명으로 약 76%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호남 문학에서 ‘光羅·長·昌’지역 -즉, ‘광주문화권’ 지역 문인들이 가장 활발하게 문학 활동을 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光羅·長·昌’지역 -즉, ‘광주문화권’의 설정이 타당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3. 『光州圈文集解題』수록 문인들 중 담양권에서 출생한 문인들의 출생년대

<표 5>는 『光州圈文集解題』수록 문인들 중 담양권에서 출생한 문인 39명의 출생년도를 조사하여 담양권에서는 어느 시기에 문학 활동이 활발하였는가를 조사하였다.

<표5> 『光州圈文集解題』중 담양권 문인들의 출생 년대별 분류 <총39명>

년대	15세기이전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합계
문인수(명)	2명	1명	10명	3명	11명	12명	39명

<표 5>에 의하면 담양권에서도 16세기에 들어와 문학 활동이 활발하

였음을 보여주고 있어 호남 문학의 개화기와 담양 시단의 개화기가 일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달리 담양 지역에서는 17세기에 문학 활동이 현저하게 위축되었다가 조선 후기에 속하는 18-19세기에 다시 문학 활동이 활발하여졌음을 보여 주는데 이는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담양시단의 특색을 구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4. 『光州圈文集解題』수록 文人들의 文集發刊 年代

다음으로 『光州圈文集解題』수록 문인들의 문집 발간 년대를 조사하였다. 문집의 발간은 문집의 주인공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발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집은 문인들이 세상을 떠난 후 바로 발간되는 경우보다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발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렇지만 문집의 발간이란 선인들의 문학 활동을 인정하고 계승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문집을 발간하는 것도 문학 활동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여 고찰의 대상으로 하였다.

<표 6>은 『光州圈文集解題』에 수록된 문집들의 발간년도를 조사하여 작성하였다.

<표 6> 『光州圈文集解題』수록 문집 발간년도 <총 310권>

발간 년대	15세기이전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미상	합계
발간문집 수(권)	1		3	17	9	32	211	37	310권

<표 6>에 의하면 15세기 이전에는 문집의 발간이 거의 없다가 17세기에 문집 발간이 급증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문집이 대상 문인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 발간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문집의 발간을 통해

서 보더라도 15, 16세기가 광주권 문인들의 문학 활동이 활발했던 문학의 개화기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겠다.

또한 조선 후기이자 근대에 접어드는 18-19세기에 문집 발간이 증가하였으며 20세기에는 폭발적인 문집 발간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표 <3>, <5>에서 보여 주었던 문학활동의 급증 시기를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표 7>은 20세기에 문집 발간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20세기를 10년 단위로 나누어서 발간 년대를 알아 보았다.

<표 7> 『光州圈文集解題』20세기의 년대별 발간문집 수 <총 211권>

년대	1900년	1910년	1920년	1930년	1940년	1950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총계
문집	21	11	10	17	8	23	37	29	54	1	211권

<표 7>에 의하면 1900년대 들어와서도 문집의 발간은 오히려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한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무렵에도 활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1980년대에 문집 발간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전라남도에서 1986년부터 1989(?)년까지 각 市郡의 未發刊 문집들을 발굴 수집하여 影印發行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31권(?)의 문집들을 발간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표 8>은 『光州圈文集解題』수록 문인들 중 담양지역에서 출생한 문인 39명의 문집발간 년도를 조사한 것이다.

<표 8> 『光州圈文集解題』중 담양권 문인들의 문집발간 년대 <총 39권>

년대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미상	합계
발간문집 수		4	2	2	30	1	39권

<표 8>은 담양권에서도 16세기 이전에 발간된 문집은 나타나지 않은 데 비해 17세기에 갑자기 문집 발간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문집 발간 전 시대인 16세기의 문학 활동이 활발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담양에서도 다른 지역과 같이 18-19세기에도 문집 발간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9>는 담양권의 20세기 문집 증가의 이유를 파악하고자년대별 발간 문집의 수를 조사한 것이다.

<표 9>

『光州圈文集解題』중 담양권 문집들의 20세기년대별 발간 수 <총30권>

년대	1900년	1910년	1920년	1930년	1940년	1950년	1960년	1970년	1980년	미상	합계
문집 수	3		1		2	1	4	3	13	3	30권

<표 9>에 의하면 담양권 문집들은 대부분이 20세기에 들어서 발간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발간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 이유 역시 전라남도의 문집 발간 사업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지금까지 『光州圈文集解題』에 수록된 문집들을 조사 분석하여 광주권을 중심으로 한 문학 활동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지금까지 입증된 것들 외에 다음과 같은 부분들은 앞으로 더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표 3>에 의하여 확인된 16세기 문인들의 활발했던 문학 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표 3>에서 16세기 이후에도 문학

활동이 여전하게 활발하게 유지되고 19세기에 이르러서는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 16세기 이후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당시의 문학 현상만큼 활발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 이유는 17세기 이후의 문학이 16세기의 문학과 구별되어 연구될 만큼 특색을 드러내지 못하였거나, 17세기 이후의 문학에 대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17세기 이후의 광주문화권 특히, 담양 시단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2007년도에 발표된『17世紀 前期 無等山圈의 漢詩研究 -潭陽地域 作家와 作品을 대상으로-』¹¹⁾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17세기 이후의 광주문화권에 관련된 연구가 보다 활발해져야 한다는 것을 숙제로 할 수 있겠다.

더욱이 담양시단을 고찰하고자 할 때, <표 5>에 의하면 담양권에서도 16세기의 문학 활동이 활발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 특이한 사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담양 지역에서는 17세기에는 문학 활동이 현저하게 위축되었다가 조선 후기에 속하는 18-19세기에 다시 문학 활동이 활발하여졌음을 파악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담양권에서 17세기의 문학이 위축되었던 것에 대한 것과 18-19세기에 다시 활발해진 문학 현상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 6>에서 본 것처럼 19-20세기의 왕성한 문집 발간에 대한 규명과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세기의 왕성한 문집 발간이 전라남도에서 주관하였던 향토문화자료 발굴 사업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사업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있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980년대에 이루어진 문집 발간 사업이 20년이 넘는 지금에는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으며 이들 자료에 의해 전시대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전시대의 자료의 수집과 정리 사업은 더 빨리,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후대에 전해져야 하고 연구자들에게는 연구의 기반과 기회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11) 鄭知溶, 『17世紀 前期 無等山圈의 漢詩研究 -潭陽地域 作家와 作品을 대상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4. 樓亭을 중심으로 고찰한 潭陽 詩壇

樓亭이란 樓閣과 亭子의 略稱이다. 누정은 가족집단이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주거용의 가옥이 아니라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높고 환출한 곳이나 그윽하고 깊은 곳에 자리잡아 유람 내지 휴식의 공간으로 특별히 지은 건물이다.¹²⁾ 그러므로 樓亭은 ‘우리나라 前近代社會에 있어서 敎養人들의 知的 活動의 장소이며 上層支配階層의 文化가 구체적으로 發顯되는 장소’¹³⁾인 것이다. 누정은 특히 ‘조선조에 이르면 많은 누정이 계속 건립되어 선비들의 樓亭詩壇의 활동은 한층 활발해’¹⁴⁾져서 ‘우리 문학의 중요한 산실’¹⁵⁾이 되었으므로 문학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에서는 누정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84년부터 1990년까지 전남 지방에 소재한 누정 조사를 실시하여『全南地方 樓亭 調査報告 I~VII』¹⁶⁾를 작성하였다. 보고서에서는 누정이 갖는 기능으로 ①詩壇 ②講學所 ③齋室 ④別墅 ⑤鄉約施行處 ⑥養老·敎化所 ⑦射場 ⑧宗會所 ⑨治水 등을 들면서 그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이 詩壇으로서의 기능이라고 하면서 특히 潭陽지역의 정자들은 이미 일찍부터 그 존재가 주목되어 著名한 事例로서 널리 알려져 왔다고 주목하였다.¹⁷⁾ 본 장에서는 문집 조사에서 이미 파악된 담양 시단의 모습을 누정 조사를 통해서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12) 朴煥圭, 「韓國의 樓亭攷」, 『湖南文化研究』第十七輯, 全南大學校 湖南文化研究所, 1987. 2-6쪽.

13) 金東洙, 「全南地方 樓亭 調査報告(I)-光州·光山·潭陽·長城 地域-」, 『湖南文化研究』第十四輯, 37쪽.

14) 朴煥圭, 『湖南詩壇의 研究』,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8, 219쪽.

15) 朴煥圭, 「韓國의 樓亭攷」, 『湖南文化研究』第十七輯, 2쪽.

16) 全南大學校 湖南文化研究所, 『全南地方 樓亭 調査報告 I~VII』, 『湖南文化研究』14~20집, 1985~1991.

17) 金東洙, 「全南地方 樓亭 調査報告(I)-光州·光山·潭陽·長城 地域-」, 『湖南文化研究』第十四輯, 64-65쪽.

먼저 1984년부터 1990년까지 계속된 누정조사에 의하여 파악된 전남 지역 전체 누정의 분포 지역과 수는 <표 10>과 같다.



<표 10> 全南地方 樓亭 분포도

<표 10>에 의하면 전남 지역에 전체적으로 분포된 누정들은 모두 1,691개소에 달하는데 그중 1,052개소는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639개소가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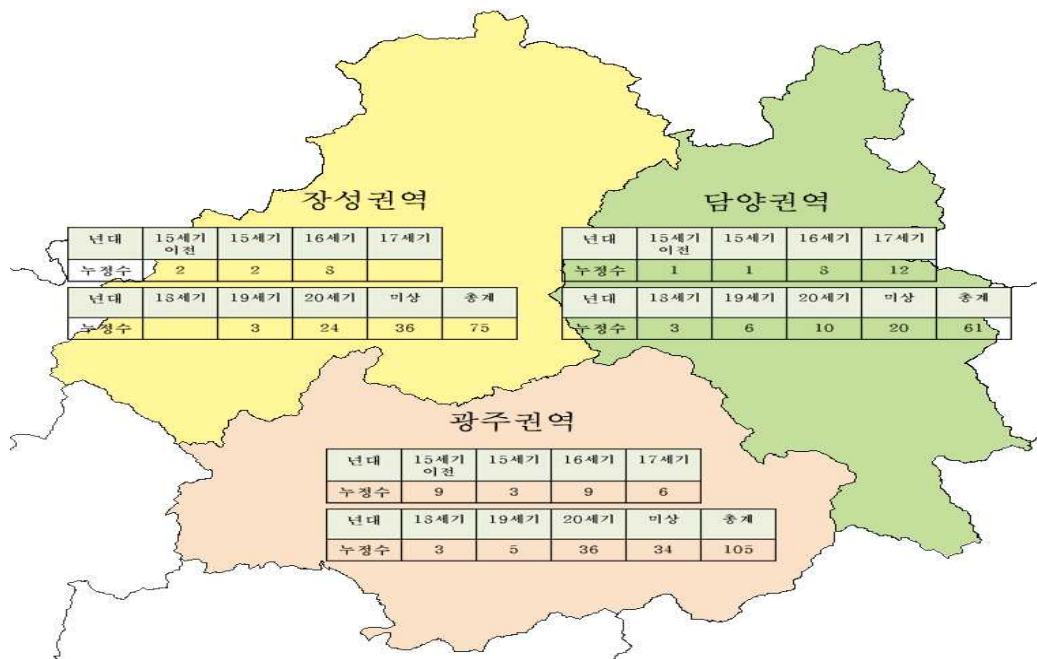
<표 11>은 광주권(광주, 장성, 담양)에 분포되어 있는 누정들이다.



<표 11> 광주권(광주, 장성, 담양) 누정 분포도

<표 11>은 광주·광산, 담양, 장성 지역의 누정 분포도인데 광주·광산 지역에 105개소, 담양 61개소, 장성 75개소로 총 241개의 누정이 건립되었으며, 현존하는 누정은 광주·광산 지역 47개소, 담양 22개소, 장성 19개소로 총 88개소로 파악되었다. 이들 세 지역에 현존하는 누정의 수는 전남 전체 현존 누정의 약 14%를 점유하고 있는데 전체 23개 지역에서 이들 3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으로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 12>는 광주, 담양, 장성 지역에 건립된 누정들의 건립년대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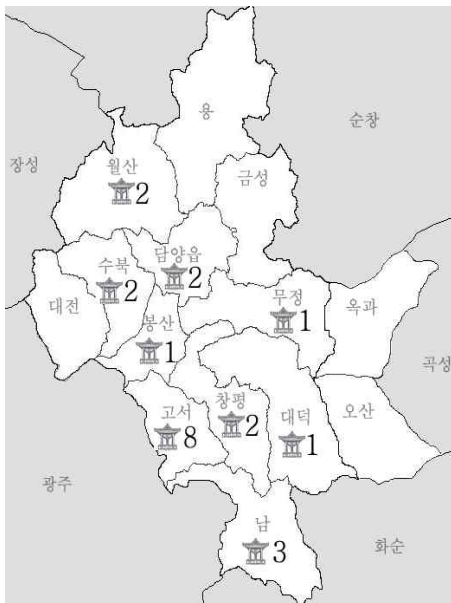


<표 12> 광주, 장성, 담양지역 누정 건립연대별 분류(총 241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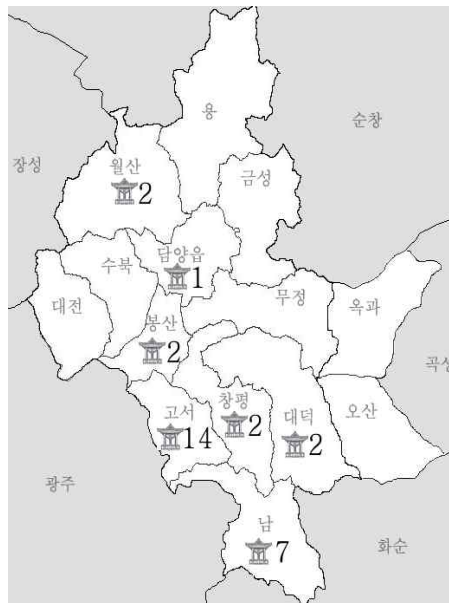
<표 12>에서 보면 광주, 장성, 담양 지역 모두 16세기부터 누정의 건립이 현저하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또, 담양지역은 17세기에 두 지역에 비해 누정의 건립이 활발하였으며 19~20세기에 이를 때까지 계속 건립되었음을 볼 수 있다. 누정이 담당하는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詩壇으로서의 기능이라면 이들 누정의 건립과 시단의 융성은 맥을 같이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문집>의 고찰을 통해서 파악된 것처럼 <누정>의 고찰에서도 16세기가 문학의 개화기였다는 것을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근대 후기로 가면서 <문집>의 발간과 <누정>의 건립은 지속되었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문집>과 <누정>의 활동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전시대의 문학, 특히 한문학 활동이 20세기에 들어서도 근대 문학과 함께 지병행되었음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졌던 한문학 활동의 모습과는 달리 근대의 한문학 활동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앞으로 연구자들이 근대 이후의 고전문학-한문학과 국문시가- 연구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다.

<표 13>과 <표 14>는 현존하는 담양지역의 누정 분포도이다.



<표 13>
1985년 조사 담양지역
현존 누정 분포도



<표 14>
2000년 조사 담양지역
현존 누정 분포도

5. 潭陽 詩壇의 형성과 宋純의 役割

지금까지 <문집>과 <누정>조사를 통하여 담양이 15-16세기에 호남문학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하면서 한시와 국문시가를 함께 창출하는 시단의 선구자 역할을 하여 왔음을 확인하였다. 본 장에서는 담양이 이러한 시단 활동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촉발제가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문학에서 누정을 중심으로 일군의 무리들이 모여서 詩歌로 함께 창수하고 교유하여 歌壇, 또는 詩壇이라는 문학 집단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조에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담양지역에 세워진 樓亭은 61개에 이르렀으며 누정을 중심으로 한 시단의 결성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은 16세기부터였던 것은 이미 파악되었다. 俛仰亭이 건립된 1533년 이전 담양 지역에는 瑞隱 全新民이 조선 건국 초기인 1400년경에 건립한 獨守亭과 楸齋 金自修가 1457년에 건립한 上月亭이 있었다. 裴季厚가 1530년경에 건립한 小樓, 1530년에 瀟灑處士 梁山甫가 건립한 瀟灑園이 있었다. 그 중 小樓와 瀟灑園은 俛仰亭이 건립되던 1530년 무렵에 건립되었다. 1533년 송순이 俛仰亭을 건립하고 시단활동을 전개한 16세기 중기 이후 담양지역에는 면양정 외에도 5개의 누정이 건립되었고 17세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누정들이 건립되었는데 ‘宋純은 이러한 樓亭文化가 한창 일기 시작한 16세기에 樓亭文化를 일으킨 중심적인 인물’¹⁸⁾이 되었다. 송순의 면양정 건립을 전후하여 많은 누정들이 건립되었으며 이들 누정의 주인들 또한 쟁쟁한 문사들이었는데 왜 송순의 면양정이 16세기 누정 문화와 담양 시단의 중심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송순에 관한 기록들은 당대에서부터 많이 나타나는데 가장 많은 것은 송순의 장수와 오랜 관직생활에 관한 것이다.『遣閑雜錄』¹⁹⁾과『松溪漫錄

18) 金成基, 『俛仰宋純詩文學研究』, 國學資料院, 1998, 121쪽.

』²⁰⁾에는 송순이 92세에 正二品 知中樞에 재임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송순의 장수와 오랜 관직생활은 그 당시에 특별한 일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송순의 장수와 오랜 관직 생활은 송순 주변으로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는 하나의 동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송순의 장수는 그와 교류하거나 사사하는 인물들이 많아질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송순의 오랜 관직생활은 송순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신뢰와 권위를 부여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송순은 오랜 관직생활 중에도 향리의 老儒와 老宿들을 깎듯한 예로 모시는 겸손과 아량을 보였으며 퇴임 후에 향리로 돌아가고자 했던 자신의 뜻을 실천하여 귀향하였는데 이러한 일은 당시 관리들이 퇴임 후에도 한양에 계속 머무는 것과는 달랐던 송순의 민첩하고 지혜로움(機警明智)을 보여주는 일²¹⁾들로 기록되고 있다.

오랜 관직생활 동안 얻은 명망과 향리의 관습과 원로들을 존중하는 인품으로 인하여 퇴임 후에도 송순은 향리인 담양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중심 인물로 활동할 수 있었다. 또한 송순이 가지고 있었던 오랜 경륜과 원만한 성품, 뛰어난 시창작 능력은 송순의 문하에 많은 문인들과 제자들을 불러들여 면양정을 중심으로 하는 시단을 형성하는 구심점을 이루었다.

박준규 교수²²⁾는『俛仰集』을 통하여 송순과 시적 교분을 가졌던 인물들이 무려 110餘名에 이르렀다고 조사한 바 있으며 송순의 家狀²³⁾에도 申

19) 沈守慶 撰, 『遣閑雜錄』.

20) 權應仁撰, 『松溪漫錄』[下]: 自中廟以後. 宰相之享遐福. 而登峻秩者無幾. 宋相諱欽. 年九十餘歲. 官至一品. 李相諱賢輔. 年八十九歲官至一品. 宋相諱純. 年九十二歲官至正二品. 吳相諱謙. 年八十九歲官至一品. 鄭相諱士龍. 年八十一歲官至一品. 洪相諱暹. 年八十二歲官至三公. 元相諱混. 年八十九歲官至一品. 今尙無恙. 享年七十者尙不多. 齒爵竝高者不亦寡乎.

21) 許均. 『惺所覆瓿藁』卷之二十三, <說部二 惺翁識小錄中> [宋純得出南大門], [宋純得參鄉案]

22) 朴煥圭, 『湖南詩壇의 研究』,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8, 238쪽.

23) 『俛仰集』, 卷之五 附錄: 企村先生宋公家狀.

企齋光漢으로부터 退溪, 聽松, 松齋 등 龍門의 諸賢들과는 모두 道義로써 서로 기약하였으며 後進名流들로는 河西, 錦湖, 玉溪, 思菴, 高峯, 霽峯 松江 이하 二十餘公이 모두 출입하면서 尊復하였다고 교유인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였던 송순의 흡인력은 무엇이었을까. 본 발표자는 그 이유를 다음의 두 가지로 보고자 한다.

첫째는 송순의 오랜 관직생활 속에 농익은 깊은 경륜과 월만한 성품 때문이라고 본다. 송순은 27세에 출사하여 77세에 이르기까지 60여년 동안 60여 개의 부서를 옮겨 다니면서 관직생활을 하였다. 송순이 역임했던 관직은 송순의 年譜²⁴⁾에 상세하게 나타나 있는데 박준규 교수²⁵⁾는 송순의 관직을 직급별로 나누어 분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장기간의 관직생활은 당시에 희귀하여 1579년 송순의 나이 87세 때에는 송순의 관직생활 60년을 축하하는 회방연이 면양정에서 성대하게 베풀어지기도 하였다.²⁶⁾ 김성기 교수²⁷⁾는 宋純이 지표로 삼고 살았던 삶의 철학을 ‘寬容과 大道’로 규정하고 송순의 아호 ‘俛仰’에서 그러한 삶의 철학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송순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 역시 한결같이 송순의 덕과 포용력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둘째, 면양정 시단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는 국문시가와 한시를 넘나드는 송순의 문학 창작 능력, 그 중에서도 국문시가인 가사 창작 능력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장덕순 교수²⁸⁾는 면양정의 <면양정가>는 송순이 처음에 한글로 불렀던 것인데 이것을 다시 송순이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백 년도 훨씬 전에 한학자 관료인 송순이 면양정을 짓고 그 일대의 서경을 우리말로 노래하고 한글이 발표된 지 이백 년도 채 안되었을 그 당시에 한글로 노래를 짓는 것은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24) 『俛仰集』, 卷之五 附錄: 議政府右參贊俛仰亭先生年譜.

25) 朴俊圭, 『湖南詩壇의 研究』, 247쪽.

26) 『俛仰集』, 卷之五 附錄: 企村先生宋公家狀.

27) 金成基, 『俛仰宋純詩文學研究』, 國學資料院, 1998, 39-41쪽.

28) 張德順, 「光州文化圈과 國文學」, 102쪽.

없는 이례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송순을 훈민정음을 가지고 노래를 지어 부르고 또 한역시도 남기는 한글문학과 한자문학을 병행한 선각자로 보면서 송순의 <면양정가>는 한글문학과 한자문학이 사백년 전부터 병존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 송순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던 정철은 息影亭 四仙(金棲霞堂, 林石川, 高霽峯, 鄭松江)이 쓴 한시를 소재로 하여 <星山別曲>을 지었는데 먼저 지어진 한시보다 그 표현이 대단히 뛰어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면양정가>는 한글로 지어진 것을 한역시로 남겼고, <성산별곡>은 한시로 지어진 것을 한글로 남긴 것이니 모두 국문학상에서 주옥처럼 빛나는 작품이라고 극찬하였다.

당시 문학의 주류였던 한시 창작에서 송순에 대한 평가가 월등했던 것은 아니다. 허균²⁹⁾은 호남 17傑을 말할 때,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언급한 것 같은데 송순을 호남 1세대 문인 중에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에 위치시켰다. 이는 송순에 대한 허균의 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평가는 아마도 한시를 주로 한 평가였던 것 같으며 다른 평자들에게서도 송순의 한시에 대한 평가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송순의 국문시가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명종조에 御苑에 핀 黃菊을 꺾어 玉堂官에게 내리면서 歌詞를 지어 올리라 명하였는데 玉堂官이 창졸간이라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그 때에 송순이 宰樞로 摠府에서 수직하고 있었는데 이에 빌려 지어서 바쳤다. 임금이 이를 보고 놀라 기뻐하면서 누구의 작품인가 물으니 玉堂官이 감히 숨기지 못하고 사실대로 대답하니 이에 큰 상을 내렸는데 그 가사가 지금에 이르도록 樂府에 전한다.³⁰⁾

우리나라의 가사는 방언이 섞여 있는 고로 중국의 악부와 나란히 비교할

29) 許均, 『惺所覆瓿藁』 卷之二十三, <說部二 惺翁識小錄中> 「惺叟詩話」 [湖南人才之浮沈].

30) 李睟光, 『芝峯類說』 卷十四 文章部七 歌詞: 明廟朝折御苑黃菊. 賜玉堂官. 命撰進歌詞. 玉堂官倉卒不能就. 時宋純以宰樞直摠府. 乃借製以進. 上覽之. 驚喜問誰作此者. 玉堂官不敢隱. 以實對. 乃大加賞賜. 其詞至今傳于樂府.

수 없다. 근세의 송순, 정철과 같은 이들이 가장 잘 지었는데 입으로 회자되는데 불과하다 그치고 마니 애석할 뿐이다. 장가인즉 感君恩, 翰林別曲, 漁父詞가 가장 오래 되었으며 退溪歌, 南冥歌, 宋純의 俛仰亭歌, 白光弘의 關西別曲, 鄭澈의 關東別曲, 思美人曲, 續思美人曲. 將進酒詞가 세상에 盛行하였다.³¹⁾

근세에 우리 말로 장가(長歌)를 짓는 자가 많으니, 그 중 송순(宋純)의 〈면양정가(俛仰亭歌)〉와 진복창(陳復昌)의 〈만고가(萬古歌)〉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 흡족하게 한다. 면양정가의 줄거리를 보면 아늑한 산천과 널찍한 전야의 모양과 높고 낮은 정대(亭臺), 휘돌아드는 지름길, 그리고 춘하추동 사시와 아침 저녁의 경치를 두루 기록하지 않음이 없는데, 우리 말에 한자를 써서 그 변화를 지극히 하였으니, 진실로 볼 만하고 들을 만하다. 송공(宋公)은 평생 동안 가사를 잘 지었는데, 이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잘된 작품이다.³²⁾

이러한 기록들에 의하면 조선 중기 무렵에도 국문시가인 長歌와 短歌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으며 長歌와 短歌에 능한 문인에 대해서도 그 詩才를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송순이 지은 국문시 가들에 대해서는 『俛仰集』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에게는 〈致仕歌〉3편과 〈夢見主上歌〉1편, 〈五倫歌〉5편, 〈俛仰亭長歌〉1편, 〈短歌〉7편, 〈雜歌〉1편, 그리고 젊었을 때에 玉堂에서 국화를 하사받고 지은 〈玉堂黃菊歌〉1편, 春塘臺에서 경작을 보고 임금의 명에 의해 지은 〈農歌〉1편이 있다. 方言과 古語가 함께 얹히고 억양을 갖추어서

31) 李睟光, 『芝峯類說』 卷十四 文章部七 歌詞: 我國歌詞. 雜以方言. 故不能與中朝樂府比並. 如近世宋純, 鄭澈所作最善. 而不過膾炙口頭而止. 惜哉. 長歌則感君恩, 翰林別曲, 漁父詞最久. 而近世退溪歌, 南冥歌, 宋純俛仰亭歌, 白光弘關西別曲, 鄭澈關東別曲, 思美人曲, 續思美人曲. 將進酒詞盛行於世.

32) 沈守慶 撰, 『遣閑雜錄』: 近世作俚語長歌者多矣. 唯宋純俛仰亭歌. 陳復昌萬古歌. 差強人意. 俛仰亭歌則鋪敘山川田野幽復曠闊之狀. 亭臺蹊徑高低回曲之形. 四時朝暮之景. 無不備錄. 雜以文字極其宛轉. 眞可觀而可聽也. 宋公平生善作歌. 此乃其中之最也.

풍류의 情致가 넘치고 완곡하여 능히 風教를 순화하고 잔약하고 완고함을 바로잡을 수가 있으니, 이는 일시적으로 管絃에 올려 부르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다. 그 노래는 아직도 전파되어 없어지지 않았으니, 松江 鄭澈의 <訓民歌> 가운데 제1과 제2 역시 이를 인용하여 취한 것이다. 더욱이 그의 <農歌> 음절은 듣기가 좋아 옛 마을에 전하여 농부들은 이를 부르고 알고서 이르기를 이는 宋할아버지께서 끼쳐준 소리라고 한다.³³⁾

위의 글들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자는 송순의 국문시가 창작 능력과 한시와 국문시를 넘나드는 유연성과 자유로움이 한시만을 제작하였던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과격적인 충격과 매력으로 작용하여 송순을 중심으로 시단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파악하였다. 김성기 교수³⁴⁾는 송순이 면양정 시단을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정자에 모여든 시우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시가, 특히 국문시가에 대한 탁월한 자질과 천품을 갖춘 그의 천재성과 지도력’이 ‘당시 한국문학사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한 歌辭와 短歌의 발흥과 때를 같이 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또 김성기 교수³⁵⁾는 ‘宋純은 16세기 俛仰亭에서 俛仰亭 詩壇을 형성하여 한국 시문학의 붐을 일으킨 사람’이며 ‘이 俛仰亭 詩壇의 영향을 받아서 星山에서 林億齡 중심의 息影亭 詩壇이 이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여파는 名家들이 樓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시단을 계속 형성하여 湖南 詩壇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발단과 핵이 宋純이고 俛仰亭이다.’라고 단정하여 송순이 주도한 면양정 시단이 계속 식영정 시단, 성산 시단 등으로 퍼져 나가 결국은 호남 시단을 형성하게 하는 동인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33) 『俛仰集』, 卷之五 附錄: 企村先生宋公家狀.

34) 金成基, 『俛仰宋純詩文學研究』, 國學資料院, 1998, 278쪽.

35) 金成基, 『韓國의 傳統文化』, 月印, 2001, 204쪽.

6. 결 어

본 연구자는 송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俛仰亭 詩壇이 창평의 성산에서는 임억령을 중심으로 한 息影亭 詩壇, 정철을 중심으로 한 星山 詩壇 등으로 확대 분화되면서 담양이라는 지역을 거대한 시단 지역으로 존재케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俛仰亭 詩壇과 息影亭 詩壇, 星山 詩壇, 瀟灑園 詩壇 등을 포괄하는 潭陽 詩壇이라는 권역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으로 이들 시단들을 묶어 潭陽 詩壇이라는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담양이 조선 중기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또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문시가를 비롯한 모든 문학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담양을 무대로 하여 송순 이전과 이후에도 가사작품들이 창작되고 문학 활동이 활발하게 지속되면서 현대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담양 시단의 형성을 촉발하였던 인물이 바로 송순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송순과 관련된 연구들은 흡족할 만큼 축적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담양과 송순과 관련된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된다.

첫째, 담양권 최초의 가사 작품인 李緒의 <樂志歌>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보다 심도있게 이루어져 송순 이전의 담양 문학에 대한 연구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둘째, 송순의 사승관계에서 宋欽과 宋世琳과의 관계가 더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발표자는 송순의 국문시가와 한시를 넘나드는 자유분방함과 유연성이 宋欽이나 宋世琳의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추론이 입증된다면 송순문학과 함께 담양 문학의 영역이 더욱 확장되고 국문학에서 담양 문학의 정통성과 특질이 더욱 확고하게 부각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權應仁 撰, 『松溪漫錄』
宋純, 『俛仰集』
沈守慶 撰, 『遣閑雜錄』
李晬光, 『芝峯類說』
許均, 『惺所覆瓿藁』卷之二十三
全南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編, 『光州圈文集解題』, 『光州鄉土文化叢書』
第11輯, 光州直轄市, 1992.
全南大學校 湖南文化研究所, 『全南地方 樓亭 調查報告 I ~VII』, 『湖南文化研究』 14~20집, 1985~1991.
金成基, 『俛仰宋純詩文學研究』, 國學資料院, 1998, 121쪽.
金成基, 『韓國의 傳統文化』, 月印, 2001, 161~163쪽.
담양군, 『潭陽圈歌辭와 그 遺蹟의 調査分析 및 活用方案의 研究』, 2000.
류연석, 『韓國歌辭文學史』, 국학자료원, 1994.
朴俊圭, 「韓國의 樓亭攷」, 『湖南文化研究』第十七輯, 全南大學校 湖南文化研究所, 1987, 1~2쪽.
朴俊圭, 『湖南詩壇의 研究』,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8, 219~238쪽.
林熒澤, 「16世紀 光羅 地域의 士林層과 宋純의 詩世界-溪山風流의 發展」, 『古典詩歌의 理念과 表象』, 林下崔珍源博士停年記念論叢, 1991, 408~430쪽.
張德順, 「光州文化圈과 國文學」, 『도남학보』 10권, 도남학회, 1987. 101~104쪽.
鄭知溶, 『17世紀 前期 無等山圈의 漢詩研究-潭陽地域 作家와 作品을 대상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Abstract>

The status of Korean literature in Damyang area and the role of Songsun by analyzing the collection of works and towers

Chang, Sun- hee

This report is the try to prove the existing results that are the outcome of the analysis and statistics by using objective and empirical data.

I try to testify the status of Korean literature in Damyang area and the role of Songsun by analyzing the collection of works and towers. The result of the analysis has the meaning that the conclusions verify the scholars' opinion that in 15 - 16 centuries, the Gwangju cultural area focusing on Korean literature, especially Damyang area, is reasonable.

Key words : Damyang poetical circle, Songsun, collection of works, tower, empirical method